

# 애경산업, 日·美·유럽 등서 화장품 브랜드 현지화 착수

日 코스트코서 전용 제품 선보  
美 소비자 맞춤 브랜드 ‘시그닉’  
퓨어서울과 英 판로 구축 ‘맛손’  
‘두바이 뷰티 월드’서 신규사업 모색

애경산업이 수출국을 다변화하며 글로벌 화장품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현지화 전략과 포트폴리오 확장에 나선 것으로, 중국 이후 시장 안착 여부가 주목된다.

20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애경산업이 올해 하반기 들어 글로벌 시장에서 화장품 사업을 확장하며 수익성 개선을 위한 신성장동력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 브랜드 현지화에 착수했다.

애경산업은 일본에서 드럭스토어, 온라인 쇼핑몰 등을 비롯해 대형 유통 채널로 공급을 늘리고 있다.

메이크업 브랜드 에이지투웨니스(A



에이지투웨니스가 일본 코스트코 온·오프라인에서 출시된다. /애경산업

GE20'S)의 경우 일본 코스트코에서 브랜드 입지를 넓힌다. 오프라인 매장 37개 전점과 온라인몰로 입점하게 되면서 현지 전용 제품으로 개발한 '베일 누디 에센스 팩트 글로우'를 선보인다.

베일 누디 에센스 팩트 글로우는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이다. 일본 뷰티 시장 내 선호 성분인 '비타민C 유도체'를 함유해 촉촉한 메이크업이 가능하다.

애경산업은 일본에서 메이크업 브랜드 '루나' 신제품도 지속 추가해 젊은 소비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그라인딩 컨실버터, 컨실 블렌더 팔레트 등은 이색적인 K뷰티 제품력을 갖추면서도 현지 뷰티 유행이 반영됐다. 그라인딩 컨실버터는 부드러운 밤 제형으로 처방됐지만 시계방향으로 돌리면서 사용해 원하는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이다.

컨실 블렌더 팔레트는 일본 소비자의 다크서클과 잡티 고민에 적합한 색상을 조합한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지난 달 일본 대표 온라인몰 쿠팡의 메가포 행사에서 인기 제품 종합 1위에 올랐다.

애경산업은 미국에서도 현지 전용 브랜드를 내놓으며 시장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 올해 9월 새롭게 출시한 '시그닉'은 2535 글로벌 소비자 맞춤형 브랜드다. 효과적이면서도 빠른 피부 관리가 가능한 고기능성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애경산업은 유럽, 중동 등 신흥 K뷰티 시장 개척에도 나섰다. 영국에서는

런던, 맨체스터 등 주요 도시 중심으로 K뷰티 편집숍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유통사 퓨어서울과 협업해 판로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한 루나 제품을 먼저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지난달에는 두바이에서 열린 중동 지역 최대 규모의 뷰티 및 웰니스 박람회 '두바이 뷰티 월드'에 참가해 신규 사업 기회를 모색했다. 기업 부스를 마련하고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바디·구강관리용품 등 폭넓은 브랜드를 한 자리에서 소개했다.

이와 함께 해외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매출 회복과 브랜드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틱톡 등 이커머스 중심으로 마케팅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애경산업의 화장품 사업은 올해 매분기 부진을 겪고 있다. 1분기 459억원, 2분기 625억원, 3분기 515억원 등을 기록하며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7%, 14%,

10% 줄었다.

화장품 사업 영업이익도 악화되면서 1분기 11억원, 2분기 68억원, 3분기 21억원 등에 그쳤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88%, 46%, 46% 쪼그라들었다.

화장품 사업을 포함해 올해 3분기까지 누적한 전체 실적에서도 역성장세가 나타났다. 누적 매출은 49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했고 누적 영업이익은 2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축소됐다.

같은 기간, 중국 매출도 지난해 1189억원에서 올해 969억원으로 줄었다. 다만 중국 외 국가 지역에서 56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 늘어난 규모다.

애경산업 측은 “국내외 소비 환경 변화와 최신 뷰티 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시장별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광동제약, ‘녹용당귀등 복합추출물’ 연구 수상

식품영양과학회 국제학술대회 수상  
국내 첫 녹용 기반 기능성 원료 사례

광동제약은 2025 한국식품영양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녹용당귀등 복합추출물’ 기능성 연구결과로 우수포스터 발표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녹용당귀등 복합추출물은 전립선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소재다. 광동제약이 자체 개발하고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별인정형기능

성원료(제2023-16호)로 허가받은 국내 첫 녹용 기반 원료다.

특히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천연물 기반 기능성 원료의 체계적 검증 사례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해당 연구는 전립선 비대 증상을 가진 40~75세 성인 남성 103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녹용당귀등 복합추출물 또는 위약을 섭취했다.

그 결과 녹용당귀등 복합추출 500mg 섭취군의 국제전립선증상점수에서 대조

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이 확인됐다. 요절박·빈뇨·잔뇨감·복합배뇨·야간뇨·악한 배뇨·생활만족도 등 7개 세부 항목에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박일범 광동제약 천연물융합R&BD 본부장은 “식·의약 통합 관점에서 천연물 소재 발굴과 효능 검증, 표준화를 지속하고 있다”며 “천연물 기반 기능성 연구의 범위와 깊이를 확장해 연구 신뢰도를 확보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연말 한정판

‘유어 스파클링 홀리데이’ 선보

아모레퍼시픽은 이니스프리에서 2025 홀리데이 컬렉션으로 ‘유어 스파클링 홀리데이(더욱 눈부신 연말)’을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

유어 스파클링 홀리데이는 이니스프리 대표 제품인 그린티 씨드 히알루론산 수분 크림 세트, 레티놀 시카 흔적 앰플 세트, 레티놀 그린티 PDRN 스킨부스터 앰플 세트, 마이 퍼퓸드 핸드크림 스펙셜 세트 등 총 4가지로 구성됐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특히 그린티 씨드 히알루론산 수분 크림은 글로벌 인기 제품으로 30초에 1개씩 팔리는 재구매율 1위 제품이다. 수분 충전 및 보습 성분인 뷰티 그린티 추출물과 5종 하얏



이니스프리 2025 홀리데이 컬렉션 ‘유어 스파클링 홀리데이(YOUR SPARKLING HOLIDAY)’ /아모레퍼시픽

루론산을 함유한다.

이와 함께 이번 한정판에는 이니스프리 세럼과 크림의 투명하고 빛나는 제형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제품 디자인이 더해져 연말 분위기와 소장 가치를 높인다.

이니스프리 공식 온라인몰과 국내 148개 가맹점을 포함한 오프라인 매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청하 기자

## 유한양행 오는 30일까지 버들장터 ‘블랙프라이데이’ 진행

연중 가장 큰 폭 할인·혜택 제공

유한양행은 오는 30일까지 자사 공식 온라인몰 버들장터에서 ‘블랙프라이데이’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년에 단 한 번 열리는 만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고객들이 실질적인 구매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사용 후 재발급이 가능한 무제한 쿠폰팩을 선보인다.

행사 상품군은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구강 관리, 뷰티, 반려동물용품, 선물세트 등 폭넓게 구성돼 있으며 각 카테고리 인기 제품에 최대 할인이 적용되고 있다. 또 연말을 맞아 가족, 지인 등 고마운 이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실속형 선물도 마련해 활용도를 높였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버들장터 블랙프라이데이는 연중 가장 큰 폭의 할인과 특별한 혜택을 제공해 많은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쇼핑 경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 서비스와 이벤트를 통해 온라인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맥도날드, 크리스마스 맛이 신메뉴 4종

크리스마스 트러플 치즈버거 등 선보

맥도날드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깊고 풍부한 맛의 ‘크리스마스 트러플 치즈 버거’ 2종을 포함한 연말 신메뉴 4종을 출시한다.

맥도날드의 크리스마스 시즌 신메뉴 4종은 각각 ▲크리스마스 트러플 치즈버거 ▲크리스마스 핫 트러플 치즈버거 ▲크리스마스 트러플 치즈 머핀 ▲메리 베리 맥피즈로 구성됐다.

‘크리스마스 트러플 치즈 버거’는 지난해 첫 출시 당시 프랑스 남부 지방의 대표 겨울 요리 ‘알리고(Aligot)’와 고급 향신료 트러플의 향긋함을 결합한 이국적인 맛으로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메뉴다. 맥도날드는 세 가지 종류의 치즈와 감자를 섞어 만든 알리고를 바삭한 크로켓 형태로 재해석해 맛과 식감의 균형을 살렸다. 여기에 송로버섯 오일과 가루로 만든 트러플 랜치소스를 더해 풍미를 완성했다.

올해 맥도날드는 매콤한 맛을 선호하는 국내 고객들의 입맛을 겨냥해 ‘크리스마스 핫 트러플 치즈 버거’를 새롭게 선보이며 선택의 폭을 넓혔다. 크리스마



맥도날드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깊고 풍부한 맛의 ‘크리스마스 트러플 치즈 버거’ 2종을 포함한 연말 신메뉴 4종을 출시한다. /맥도날드

스 핫 트러플 치즈버거는 알리고와 트러플의 조화에 ‘핫 트러플 소스’를 더해 풍부한 트러플 풍미에 매콤함을 더한 색다른 맛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맥모닝 메뉴 ‘크리스마스 트러플 치즈 머핀’도 라인업에 더해 아침에도 특별한 풍미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크리스마스 트러플 치즈 머핀’은 잉글리시 머핀에 버거 2종과 같은 알리고와 트러플의 조합으로 탄생했다.

‘메리 베리 맥피즈’는 시즌 한정으로 출시되는 탄산음료로 상큼한 라즈베리 시럽과 연말을 연상시키는 붉은 색감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층 더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동국생명과학, 영상진단 의료환경 조성 박차

캐논 메디칼시스템즈 코리아와 ‘맛손’

동국생명과학이 캐논 메디칼시스템즈 코리아와 ‘국내 의료 영상진단 장비 판매 및 서비스’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동국생명과학은 캐논 메디칼시스템즈 코리아가 판매하는 캐논 MRI, CT, 초음파 등 주요 영상 진단 장비를 전국 의료기관에 공급한다. 설치, 기술 지원, 유지보수 등 서비스도 담당한다.

캐논 메디칼시스템즈 코리아는 인공지능 기반 영상 재구성 기술, 저선량 촬영 기술, 미세혈류 영상 기술 등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다. 최근에는 하이엔드 초음파 ‘프리즘 에디션’ 업그레이드를 출시하는 등 의료진의 영상 진단을 뒷받침하는 전문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동국생명과학은 조영제 및 영상 진단 장비 분야에서 오랜 기간 구축한 영업망



김영준 캐논 메디칼시스템즈 코리아 대표(왼쪽)와 박재원 동국생명과학 대표(오른쪽)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국생명과학

과 경험을 바탕으로 캐논의 첨단 기술을 국내 의료 시장에 폭넓게 확산시킬 계획이다.

동국생명과학 관계자는 “앞으로도 캐논 메디칼시스템즈 코리아와 공동 마케팅 및 기술 협력을 이어가며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첨단 영상 진단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정밀 의료 실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